KiRi 리포트 2018.10.29.
글로벌 이슈

아시아 국가별 건강보장 현황

한성원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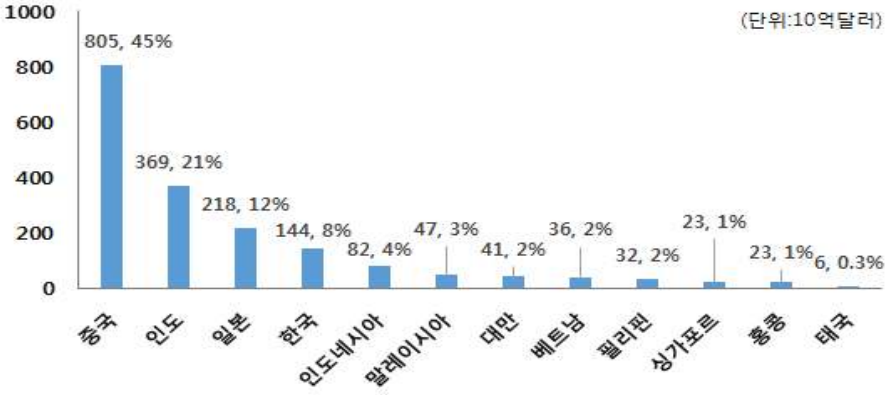
아시아 12개 국가의 건강 보장갭(Protection Gap) 총액은 2017년 기준 약 1조 8,000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2개국 GDP 총액의 7.4%임. 아시아 경제성숙국가의 평균 보장갭 크기는 아시아 신흥국의 3배 이상이지만, 연간 가계소득 대비 건강 보장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 신흥국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됨. 각 국가의 건강 보장갭 대부분을 중산층이 차지하고 있지만 보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층임. 건강보장갭을 줄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비자 중심의 기술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새로운 파트너쉽 모색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 12개 국가[1]의 건강 보장갭(Protection Gap)[2] 총액은 2017년 기준 약 1조 8000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2개국 GDP 총액의 7.4%임[3]

- 건강 보장갭 총액의 대부분은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분포하는데, 특히 중국과 인도의 보장갭은 각각 약 44%, 20%를 차지함(〈표 1〉 참조)
-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성숙시장(Mature Market) 국가들의 보장갭은 인구수와 높은 의료비용이 원인임
- 대만은 정부의 의료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낮은 자기 부담 의료비용의 혜택을 받고 있어 건강 보장갭 수준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음

1) 아시아 신흥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아시아 경제성숙국가(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2) 통상 세계보건기구(WHO)가 시행하는 국가 건강관리 조사에서 건강에 대한 자기 부담 지출 수준이 보장갭(Protection Gap)의 Proxy로 사용됨. 반면 Swiss Re는 자금 마련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용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비용 두 가지 의미로도 정의함
3) Swiss Re(2018), "The health protection gap in Asia"

〈표 1〉 국가별 건강 보장갭



자료: Swiss Re

■ 아시아 경제성숙국가의 평균 보장갭 크기는 아시아 신흥국의 3배 이상이지만, 연간 가계소득 대비 건강 보장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 신흥국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연간 가계소득 대비 건강 보장갭 비중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은 각각 13%, 10%, 7%이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는 각각 22%, 20%, 18%임
- 이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료 받지 못한 비용은 2017년 기준 약 920억 달러로 추정됨[4)]

■ 각 국가의 건강 보장갭 대부분을 중산층이 차지하고 있지만 보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층임

- 인도, 중국, 한국의 저소득층은 건강 보장갭의 크기가 연간 소득의 각각 2.5배, 1.7배, 1.2배 큰 것으로 추정됨

■ 건강 보장갭을 줄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비자 중심의 기술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새로운 파트너쉽 모색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회사는 의료 산업 가치 사슬의 주요 참여자로서 데이터 수집자에서 데이터 사용자까지 역할을 확장하여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KiRi

4) Swiss Re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 전체 비치료 사례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치료비용의 약 90%를 차지함(중국의 경우 약 610억 달러, 인도의 경우 약 220억 달러 수준임)